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말씀: 벧후1:12-21

도입

사도 베드로는 후서 1장 1-11절에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일곱 가지 덕목에서 자라 열매 맺고 멀리 보며 안전을 얻는 자 말세의 특징: 거짓 교사들과 대언자들의 출현, 마24장 등, 진리가 있으면 꼭 위조품이 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데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12-21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다.

사람은 죽으나 말씀은 살아 있다(12-15)

주님의 말씀(요21:18): 베드로의 죽음,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세 가지 동기

1. 그리스도의 명령(눅22:31-32), 그래서 그는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12절)
2. 그들에게 진리를 기억하게 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13절).
3.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애쓰리라(15절)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것: 12, 13, 15절에 있듯이 그들이 배운 진리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것 같이 기억하게 함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굳게 서 있었다(12절).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일깨우고 기억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성령님의 사역 중 하나는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요14:26). 빌3:1, 목사의 임무 중 하나, 자꾸 기억하게 하는 것

14절: 베드로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았다. 그는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다. 베드로전후서는 영감 받은 성경 기록들이 되어 지금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에 객관적인 말씀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없다면 구전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지해야 한다. 같은 사고를 목격한 3명의 진실한 증인들도 선한 양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 있다. ‘기록된 바’(마4:4) 바로 이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경험은 시드나 말씀은 남아 있다(16-18)

이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같이) 마17:1, 막9:2-8, 눅9:28-36 이 세 저자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 16-19절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존재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은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경험을 말하지 않았다(마17:9),

변화산 사건의 의미:

1.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마16:16)을 확증해 주었다. 베드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2.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심으로서 사랑과 격려를 보여 주셨다.
3. 세 복음서 모두에서 이것은 또한 왕국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마16:28).

예수님의 약속: 죽기 전에 그들 중 몇몇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재림 이후의 이 왕국의 영광을 보았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여기서 언급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3장에 있듯이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 -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 로 사람들을 유혹하였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킬 때가 온다고 말한다(딤후4:4). 변화산 경험에서 얻는 교리들: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모든 종교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2.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율법과 대언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일 즉 별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눅9:31). 그분은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 예물이 되셨다.

3.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을 가리켰다(히1:1-3). 그분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성취하였다(눅24:27).
4.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를 확증해 주었다. 우리는 성경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왕국에 대한 교훈들을 점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 교회와 왕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고난 뒤에 영광이, 십자가 뒤에 왕관이 있음을 보여 주셨다.
5. 또 이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 역시 고난을 당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순교자(행12:1). 요한은 오래 살았으나 밧모 섬에 유배됨. 베드로, 변화산 경험을 통해 이들은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감을 알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1:1). 그런데 19절 초반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험이 중요해도 경험은 사라지고 결국 기록된 말씀만 남게 된다. ★★★

세상은 어두워지나 말씀은 빛을 낸다(19-21)

어느 면에서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 의약 분야, 수송 분야, 통신, 컴퓨터 분야 등 과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게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사악하고 점점 더 사악해진다. 서울시 인권 조례, 학생 폭력, 노아, 롯의 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오래 살 수 있지만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100세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와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마귀의 무대 말세에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온다는 것: 예수님의 경고, 사도 바울의 경고, 사도 요한의 경고 이분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점점 더 빛난다.

1.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다.

비록 거짓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 확실하다. 이 땅에 재림과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모세, 엘리야, 예수님, 하나님이 확실히 확증해 주셨다. 사이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심하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2. 빛나는 말씀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빛을 낸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의 빛(시119:105).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마4:16). 믿는 우리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영존하는 어둠에 갇히고 만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해처럼 점점 더 빛나 영존하는 빛 속에 거하게 된다.

3.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다. 성경의 영감(딤후3:14-17)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 아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들이 기록 바울과 베드로, 다윗, 다니엘 모두 성품과 교육, 환경이 다르다. 그들의 인격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20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

성경은 신학 박사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고 일반 대중을 위해 기록된 책이다.

누구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

성경 교사, 목사, 교회의 신조, 교리 등이 있어도 양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빼앗지는 못한다.

19절 말씀이 중요하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결론

사람은 죽으나 말씀은 살아 있다. 경험은 사라지나 말씀은 남아 있다. 세상은 어두워지나 말씀은 점점 더 빛을 낸다. 베드로는 말세의 교회들을 일깨우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재림, 우리 몸의 부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